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4309.63 (+95.46)		945.57 (+20.10)
↓	금리 (국고채 3년)	↑	환율 (원·달러)
	2.935 (-0.018)		1444.70 (+5.70)



m-커버스토리

약가제도 개편… 업계 ‘지각변동’

제약업계, 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제네릭 가격 40%대 인하
신약비중 높은기업 수익성 유지
“R&D투자 필수조건 될 것”

2026년의 시작과 함께 제약 업계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섰다. 올해 하반기 제네릭(복제약약품) 품목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대비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약가 인하로 인해 연간 최대 3조 6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8%에 그쳐, 약가 인하가 시행될 경우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개편안은 올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취지는 명확하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혁신 신약 연구개발(R&D)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 제약 산업의 구조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026년 제약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제네릭 개발에 따른 이익은 감소하고, 신약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 유지가 가능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신평은 “R&D 투자는 제약사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될 전망”이라며 “해외판매, 기술수출, 자체 신약 개발 등 R&D 성과 여부에 따른 실적 차별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李 대통령, 中 국민방문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외국인 국내주식 3.5조 매수 5년8개월 來 보유비중 최대

국제금융센터, 지난달 시총대비
외국인 보유비중 32.9% 집계

지난달 말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2월 전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32.9%로 집계됐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증권투자동향’을 통해 발표한 외국인 비중은 2020년 4월 말 기준 31.5%, 지난해 11월 말 기준 29.6%였다. 12월 말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중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 규모가 4조5000억원에 달해 외국인 전체 순매수 규모(3조5000억원)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그중 SK하이닉스가 2조2000억원, 삼성

전자가 1조4000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11월 말 53.2%에서 12월 말 53.8%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도 52.2%에서 52.3%로 높아졌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도 8조8000억원 순투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중·단기물을 중심으로 11월 말 329조5000억원에서 12월 말 33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누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6조7000억원 순매도, 채권시장에서 64조4000억원 순투자를 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주식·채권 자금이 나란히 유입된 배경으로 메모리 반도체 활황, 상대적 저평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대감, 재정 거래 유인 확대 등을 꼽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 ‘AI플랫폼’ vs LG ‘로봇 기술’ 맞대결

6~9일 CES2026 참가

中 물량공세에 기술력으로 반전 모색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2026’ 개막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가전 시장 내 중국 기업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2026’에서 자사의 AI제품과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다.

삼성전자는 기존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가 아닌 윈 호텔에서

업계 최대 규모인 4628㎡(약 1400평)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삼성전자는 냉장고·TV·세탁기·패밀리허브 기기 등이 스마트싱스로 연동되는 ‘심리스 AI라이프’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LG전자는 가정과 차량,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구현되는 AI 가전, AI솔루션을 소개한다. 이번 CES에서 첫 공개를 앞둔 홈 로봇 ‘LG 클로이D’는 여러 가전을 제어하며 가사일도 직접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이번 CES에서 ‘LG 월드 프리미어’ 연사로 오르는 점도 이목을 끈다. 류 사장은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AI)의 진화 모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CES에서

AI, 로봇, 모빌리티 등으로 전시 영역을 넓히면서 우리기업들과의 기술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에 따르면 올해 CES에 참가하는 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은 22%를 차지한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20년 넘게 꾸리던 센트럴홀 전시 공간을 떠나면서 해당 자리를 중국 가전 기업 TCL이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CES는 단순한 신제품·신기술 공개를 넘어 AI 기술을 일상과 공간 전반에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전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기술신뢰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모든 도약은
하나된 힘에서 시작된다”

AI 3대 강국을 향해
행복한 내일을 향해

대한민국이 더 빠르고 더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SK도
함께하겠습니다.

AI시대를 여는 KEY. SK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